

## 붙임1. 올해의 아르코 파트너 Best&First 비평 공모 심의 총평

- 일시 및 장소 : 2018. 10. 30(화) 11:30~,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
- 심의위원 : 배선애, 우수진, 이주영

- ‘올해의 아르코 파트너 Best&First’ 공연과 함께 진행된 비평 공모에 총 9편의 원고가 응모되었다. ‘비평’이라는 쉽지 않은 글쓰기,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라는 긴 분량, 거기에 전문 평론가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9편은 결코 적은 편수가 아니다. 또한 연극 분야의 네 작품 중 특정 작품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비평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번 기획의 연극 공연이 관객들의 관심을 두루 받았다는 반증으로 읽혀 매우 반갑고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수상 여부를 떠나 기획 공연을 주목하고, 고심하며 작성한 비평을 투고한 필자들의 관심과 노고에 치하의 박수를 보낸다.
- 응모된 9편의 비평 중에서 심사위원들은 오랜 논의를 거쳐 최우수상 1편과 가작 1편을 선정하였다. 공모의 공지에서 선정하기로 한 수효만큼의 수상작을 내지 못한 것은 응모한 편수의 많고 적음과는 별개였음을 먼저 밝혀둔다. 심사위원들은 작품 이해도, 글의 구성력 및 비평 수행력, 비평 제시 능력 및 설득력 등을 기준으로 응모된 비평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만장일치로 최우수상을 결정하였다. 해당 비평은 비록 비평에 적합한 구성을 취하지는 못했지만, 대상 작품의 내용은 물론이고 공연예술의 형식적인 부분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연출가의 활동 내력과 작가의 특징 등 총괄적인 요소까지 비평에 포함하고 있어 작품의 해석과 분석을 풍성하게 하였기에 응모된 비평 중 가장 우수하다는 데에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 가작 수상작은 비평의 대부분이 내용과 주제에만 집중했지만 작품의 장단점을 다양하게 서술한 균형감이 장점으로 인정받았다. 우수상 대상작을 선정하지 못한 것은 못내 아쉬운 일인데, 수상 명목의 구색을 억지로 맞추는 것보다는 비평의 완성도를 기준 삼은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평 공모에 더 유의미하다고 결론지었다.
- 내년에도 진행될 비평 공모에 지원하고자 하는 예비지원자들을 위해 심사하면서 발견한 문제점을 간단히 적어보면, 첫째, 대부분이 내용과 주제 분석에 치중해 있었다. 연극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에 집중한 것은 비평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반증한다. 배우들의 연기, 그들이 읊

직이던 무대 공간, 그 속을 채우는 음악과 음향, 이들을 빛으로 아우르는 조명, 의상과 분장, 소품 등등, 거기에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는 연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요소들의 조합으로 관객들과 만나는 공연예술인데도 비평의 중심을 내용과 주제로만 한정하는 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작품의 분석과 이해에 해당되는 것이다. 둘째, 비평에서는 면밀하고 다각적인 작품 분석을 전제로 담론화 과정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과 사회 위주로 작성된 글도 있었다. 비평과 감상의 차이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내용 분석에 치중하다 보니 그것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이론을 직접 대입하며 분석하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이론에 작품을 꿰어 맞추는 형국이 되어 실제로 그 작품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말았다. 넷째,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비평을 작성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자료들의 단어 하나라도 자신의 글에 가져올 때는 출처를 밝혀서 자신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표절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면서 비평을 작성한다면 다음 번 공모에는 알차고 심도 깊고 완성도 높은 다양한 비평이 풍성하게 응모할 것이라 기대된다. 내년에도 ‘올해의 아르코 파트너 Best&First’ 기획 공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심의위원 배선애, 우수진, 이주영